

韓 증시, 대형주 위주 상승장 지속 코스피-코스닥 수익률 격차 심화

코스피 상승에도 코스닥 부진 지속
ETF 상품 등 투자성과 크게 벌어져
“정책 통한 투자심리 개선 필요 시점”

코스닥시장의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코스닥지수는 14.44% 하락하며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61.85% 오른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국내 증시가 반도체 등 대형주 위주의 상승장이 전개되면서 중소형주 중심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이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5월 15조6000억원에서 6월 10조원, 이달 들어 16일까지 6조9000억원으로 줄어들며 하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코스콤 상장지수펀드(ETF)정보 플랫폼 ‘ETF CHECK’에 따르면 이날 기준 KODEX 코스닥150의 1개월 수익률은 -23.54%를 기록하고 있다. 이외에 액티브 ETF인 ▲TIME 코스닥액티브(-22.99%) ▲K&A 코스닥액티브(-22.77%) ▲PLUS 코스닥150액티브(-23.00%) 등의 수익률도 저조하게 나타났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성과는 더욱 극단적으로 벌어진다. 같은 기간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가 각각 44.90%, 44.85%씩 떨어졌다. 이외에도 ▲RISE 코스닥150 선물레버리지 -45.03% ▲HANARO 코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이날 코스닥은 전일보다 45.45포인트(5.80%) 상승한 829.43으로 장을 마감했다.

/뉴시스

스닥150선물레버리지 -44.71% ▲KIWOOM 코스닥150선물레버리지 -43.98% 등이 40%대 손실을 기록 중이다.

반면 ▲TIGER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70%) ▲KIWOOM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29%) ▲KODEX 코스닥150선물인버스(-25.29%) ▲RISE 코스닥150선물인버스(-24.77%) 등은 같은 기간 수익률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활성화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자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형주로만

쏠리면서 반등 기미를 되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개인(개인 투자자)들의 선호가 AI, 반도체 등으로 쏠린 만큼 코스피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더라도 코스닥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서학개미이자 동학개미인 국내 개인 투자자 특성상 국내 증시에서 개인의 순매수는 글로벌 AI 테마에 부합되는 업종으로만 지속될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는 국내외를 넘나들 수 있어 국내로 들어온 개인 자금의 순환매는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아닌 미국 주식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 시장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상장폐지 위험에 놓인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시총이 200억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기업은 232곳(스팩 제외·중복 제외)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코스닥지수가 13.57% 하락한 이달에는 246곳으로 증가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시장 내 쏠림이 지속되면서 역대급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며 “현재 거론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에 따른 수급 쏠림 완화와 추가적인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통해 투자 심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휘발유 등 기름값 9주 연속 하락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2~1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주보다 L당 15.5원 내린 1877.5원이었다. 19일 서울 강남의광장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홈플러스, 2000억 마련… 법원 항고절차

메리츠금융 대출… 영업재개 기대감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놓였던 홈플러스가 기자회견을 했다.

홈플러스가 대주주, 채권단, 노동조합과의 극적인 합의로 숨통이 트이며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자금 지원 조건과 보증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은 정지권 압박과 노조의 강경 투쟁이 이어지자 막판 합의에 도달했다.

김병주 MBK 회장이 2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에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고, 메리츠금융3사가 이를 전제로 대출을 최종 의결했다. 노조 역시 구조혁신안에 따른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이라는 최악의 파국은 면했지만, 영업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홈플러스는 자금 고갈 등으로 인해 지난 13일부터 전국 67개 매장의 문을 닫고

임시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폐지 결정 이후 열흘 남짓한 기간에만 1200여 명의 노동자와 700여 곳의 입점업체가 일터를 떠났고, 중소 협력사들의 미정산금도 평균 7억 7400만 원에 달해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대출금이 실제 집행되고 협력업체들과의 상품 공급 협의 및 매장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러도 8월은 돼야 영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홈플러스의 월평균 상품 매입비를 감안할 때,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인 9월 4일까지 약 50일간 전국 점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2100억~2200억 원에 달해 이번에 수혈받는 2000억 원을 웃돈다.

게다가 공익채권 규모도 지난해 3월 3328억 원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1조 999억 원으로 3배 이상 불어난 상황이다.

홈플러스는 법원이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가 재개되면 점포별 운영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등 진존 사업부문의 매각(M&A)을 추진해 최종 회생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seoh@

김용범 “단일종목 ETF, 상장폐지 어렵다”

(청와대 정책실장)

단일종목 ETF 상폐시 시장파장 우려
“부동산 강세 상황, 많은 국민께 죄송”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 주장에 “상장 폐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종목의 주가 움직임을 2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최근 코스피의 변동성 확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이미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 그 상품이 지금 10조원 이상(규모가)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그거는(상장폐지는) 상상하기는 어렵다”며 “이번에 마련한 조치가 상당 부분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국은 레버리지 ETF 매매에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높이고 20주 단위로 거래하도록 하는 보완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정책실장은 ETF 상품의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가격 간 격차인 ‘괴리율’을 짚었다. 그는 “이 상품은 상승기에 도 물론 상승을 더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하락기에는 두 배로 영향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30분 동안에 괴리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국민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도 주문을 내다보니까 그게 단기간에 좁은 구간에서 매도 압력이 순식간에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며 “이 괴리율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인 사항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들이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부동산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상황에 대해 “참 많은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광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닥치고(주택을) 지어야 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수요 압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공급이 단기간에 ‘뚝뚝’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매입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일단 다주택자와 1주택자를 달리 보고, 실거주용과 실거주가 아닌 두 개를 차등 적용하는 문제, 1주택자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초고가 부동산에 대해선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는 쪽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고가 주택과 관련 “적정 수준이 얼마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매물이 시장에 풀릴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그런 측면을 감안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단순히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는 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실장은 “몇 가지 기준에 맞춰 과세 형평 측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보유세를 높이면 양도세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의 고려 사항이고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의례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서예진 기자 syj@



metro

예·적금 줄고 투자 늘고… ‘머니무브’ 뚜렷

》1면 ‘돈 있으면 혼자…’서 계속

1인 생활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경제·재무’가 67.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건강 52.8% ▲사회적응 35.2% ▲인간관계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은 식·주·여가 및 건강 생활 전반에서 다양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혼자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향유했다.

식생활의 경우 1인가구의 주요 영역으로 떠올랐다. 새롭고 다양한 음식 시도, 비싸더라도 건강에 좋은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식문화 추구 등 2년 사이 질적인 변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식비’는 소득이 줄어도 유지하고 싶은 소비 영역을 묻는 질문에 최우선순위(42.5%)로 꼽혔다.

여가생활 역시 ‘혼자’(52.2%) 즐기는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반반(30.0%)과 ‘타인과 함께’(17.8%)를 크게 앞서며 혼자만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즐기는 삶의 방식이 관철됐다.

주거는 형태는 ‘월세’가 4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가 23.8% ▲전세 2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2024년과 비교해 ‘전세’ 비중이 6.6%p 줄어든 반면 ‘월세’ 비중은 3.7%p 늘었다. 특히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우 월세 비중이 66.5%에 달했다.

국내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1인 가구 역시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가 나타났다.

‘예·적금’ 비중은 28.3%로 2년 전보다 7.8%p 감소한 반면 ‘주식·ETF’ 21.1%, ‘가상자산’ 3.5%로 각각 6.1%p, 1.3%p 상승했다. 소위 ‘빚투’도 늘어 대출을 통한 금융상품 투자 경험도 34.0%로 2024년보다 5.2%p 높아졌다.

향후 1년 안에 가입을 희망하는 금융상품에서는 변화가 더 뚜렷했다. 향후 1년 안에 가입 의향이 가장 높은 상품은 ‘국내 주식·ETF’(42.1%)로 2024년보다 18.7%p나 상승했으며, 다음으로 ‘해외주식·ETF’가 37.8%를 차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